

시설물유지관리협 도회장에 박광표 대표 단일후보 등록

대한시설물유지
관리협회 강원도
회(회장:조병철)
의 제3대 회장에
수석 부회장인 박
광표 광명건축 대
표(사진)가 사실상 확정됐다.



도회는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후
보등록을 27일 마감한 결과 박 대표
가 단일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다. 신
임회장은 9월7일 원주 아모르컨벤
션웨딩홀에서 열리는 제6회 임시총
회에서 확정된다.

도회 관계자는 “단독 후보이기 때
문에 제3대 회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규기자

친환경 제품 할인에 즐길거리 풍성

2017강원그린박람회

내일 춘천 봄내체육관서 개막
자전거발전기·목공예 체험 등
각종제품 최대 90%저렴 판매

2017강원그린박람회가 오는 29일 춘천 닭갈비막국수축제장 인근 봄내체육관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이번 박람회장 안팎에 각종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강원도민일보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강원그린박람회는 올해 5회째로 예년과 달리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공단과 원주기후센터는 박

람회 기간 내내 재미있는 환경 퍼즐 맞추기, '자전거 발전기 체험', '샌드아트 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 첫날에는 '휴지심 연필꽂이 만들기', '우드마커 거울 만들기', 둘째날에는 '에코백 꾸미기', '북극곰과 빙하만들기', 셋째날에는 '수상가옥만들기', '풍향, 풍속계 만들기' 등의 체험을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도 행사기간내에 에너지 정책을 소개한다.

박람회장 중심에 위치한 산림자원홍보관에서는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도내 산림의 공익가치와 행복 산촌주택 등이 소개되며 실외부스에서는 유아,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무 열쇠고리와 목걸이 등 4종의 무료 목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는 '굿 워터 프

로젝트'와 '아프리카 난민 물부족 VR체험'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포드자동차는 야외부스에서 하이브리드형 수입차를 전시, 홍보하고 강원랜드는 실내부스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캐리커처 그리기' 행사를 3일내내 진행한다. 야외부스에서는 이동식 황토구들방을 설치, 구들방 체험행사도 열린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그린라이프, 녹색산업, 청정식품, 청정에너지, 환경기업, 사회적경제 부스가 운영되며 각종 제품들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박람회기간 매일 2회 경품행사와 매시간 정각 '그린을 잡아라 환경퀴즈' 이벤트가 열린다.

신관호 gwanho@kado.net

社 說

기술형 입찰, 발주기관의 인식 대전환 선행돼야

던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에서 기술력 평가를 확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가중치 방식이 주를 이뤘던 기술형입찰에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LH는 물론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주요 발주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형 입찰공사는 민간의 창의력을 끌어내고 품질의 시공물을 얻으려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 건설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설계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보면 도입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예산 절감이나 특정 업종의 물량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기술형 입찰을 건설사들이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기술보다는 가격위주 평가가 주를 이룬 데다 막한 공사비에 따른 수익성 저하, 입찰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며 유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기술형입찰 유찰 반복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불러온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간시설 건설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시설 건설을 통한 시민편

의 증진이라는 목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술형입찰 공사에서 기술평가를 확대하는 발주기관이 늘어났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가격보다는 기술평가에 주안점을 뒀다. 야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술형입찰에서 시범사업 위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 중이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다른 가중치 방식에 비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가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술형입찰 방식에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형입찰이 나아가갈 방향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술형입찰에 있어 가격 비중을 줄이고 기술 가중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야 업체 간 가격경쟁이 아니라 고품질의 설계를 통해 양질의 시설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재정당국과 발주기관의 인식전환이다. 지금처럼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제값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개선, 공사비 깎기 심각”

적정공사비 대비 평균 12% 부족하게 설계...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건정연, 8개 교육개선사업 분석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설계가격이 적정공사비 대비 12.1% 부족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연구’를 수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 8건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8건 모두 적산 전문가가 현장 여건과 공사 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설계가격보다 평균 1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종별로 건축공사는 설계가격보다 15.2%, 토목공사는 8.2% 낮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계약금액이 예산액을 넘지 않도록 조달청의 시장시공가격을 적용하거나 표준품셈을 수정해 설계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화강석 붙임(습식, 물갈기)의 경우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12만844원/㎡)가 조달청 시장시공가격(7만5132원/㎡)보다 무려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설공사에서 건축물 현장정리 공종에 대한 표준품셈 품을 100% 반영하지 않고, 칠공사의 페인트면 긁어내기 공종에는 기존 건축물 바탕 만들기 품을, 도색 도안 공종에는 도색 도안비 품을 표준품셈과 달리 적용해 일위대가를 낮췄다.

부대공사의 가설공사 공종에는 천장작업을 위한 비계 또는 이동식 비계설치비를 배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환경개선공사는 작업 수량이 적은 여러 공정이 포함돼 표준품셈의 소규모 품 할증 적용이 요구되지만 이를 제외해 일위대가를 하락시켰다.

또 소요 규모 또는 마감재 변경에 의한 설계가격 조정은 사용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분산 편성됨에 따라

단위사업 예산의 과소 계상과 중복 투자, 수선 주기 조기 도래 등의 문제를 빚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예산 편성 기준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는 계약단가이고, 산정 기준 및 절차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원은 “학교시설 장수명화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선택과 집중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수선 주기 기준 마련 및 노후화·생애주기비용 정보의 DB화가 요구된다”며 “설계단가를 기초로 예산 편성 기준단가를 산정하고 기준단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교육청 기술직의 업무 가중으로 공무원가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사비 검토 프로세스 합리화를 위해 민간 공동 원가 분석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과 공사비 이의 신청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천기자 chc@